

## 80년 5월27일 광주의 새벽, 민주주의의 승리 이끌어

5·18 45주년

'소년이왔다' 광주를 끝까지 이끌었다

1980년 5월27일 새벽, 고립무원의 도시에 피로 각인된 항쟁의 기억은 단순한 광주만의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 존엄과 자유, 공동체의 정의를 위해 '죽음'조차 기꺼이 감수한 이들이 새겨놓은 자랑스런 이정표였다. 그들은 압도적으로 패배했지만 결코 지지 않았고, 처참히 쓰러졌지만, 영원히 소멸되지 않았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들이 산 자를 구한다"는 말처럼 그날의 희생과 저항, 그리고 거스를 수 없었던 운명은 한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됐고, 그 정신은 전국의 광장과 거리에서 끊임없이 되살아났다.

지난 연말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44년만의 불법 비상계엄 시도 앞에서 오월 영령들은 오늘의 우리를 다시 광장으로 불러냈고 또 한 번 위대한 승리를 이끌었다.

본보는 5·18 45주년을 맞아 '과거의 희생'이 어떻게 '현재의 저항'으로 부활했는지 연속 보도를 통해 되짚어 본다.

편집자주

### <1>프롤로그

'5·18 최후의 항전' 의미 재조명  
죽음으로 불의에 맞선 광주정신  
12·3비상계엄 시민 저항 이끌어  
'새벽광장' 매년 항쟁의 밤 기려  
젊은세대 문화·예술 통한 공감대

5·18 민주화운동 최후의 날로 불리는 1980년 5월27일, 옛 전남도청을 비롯한 YMCA, YWCA, 전일빌딩 등에 남아 있던 수백명의 시민군은 알고 있었다. 결국 자신들이 패배할 것임을.

"탱크를 동원해 진압하겠다는 우리는 어차피 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그 같은 강경진압이 오늘의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

자신들의 죽음이 살아 있는 민주주의 역사로 기록되리라 믿었던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말처럼, 5월27일 항쟁의 '끝'은 민주주의의 '시작'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들은 끝내 그 자리에 남아 계엄군의 총알을 온몸으로 받아냈고, 죽음으로써 지금의 우리를 살렸다. 스스로를 거름으로 광주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라는 꽃을 피워냈다.

그리고 오늘, 민주주의를 위해 광장에 모인 수십만 국민들의 모습에서 1980년 광주의 봄 한가운데 서 있던 그들을 만났다.

'비상계엄 선포의 실제적 요건'은 물론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와 사법부, 국민의 광범위한 기본권'(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중)을 침해한 12·3 비상계엄은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던 전두환 신군부의 공포를 소환 시키기에 충분했다.

국민들은 국회 유리창을 깨부수던 군인들의 모습에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가 재현되고 있다는 충격을 받았지만, 집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는 대신,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목숨을 바쳐 불의에 맞섰던 '광주 정신'을 되살려냈다.

1980년 봄, 외부와 단절된 광주에서 어머니들이 골목마다 가마솥을 내걸고 시민군에게 주먹밥을 먹여줬듯, 2025년 겨울 광장에서는 시민들이 선결제해 둔 김밥과 커피가 주위를 녹여냈다. 1980년 봄, 열흘간의 항쟁 중 경찰의 치안유지 활동 없이도 폭력이나 강·절도 등 범죄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2025년 겨울 광장에서는 반짝이는 응원봉 불빛과 함께 수십만명의 목소리로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졌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내 지켜낸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피와 함께 산화한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DNA로 새겨져 언



지난 2017년 5월27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민원실 앞. 5·18 마지막 추모 행사인 '부활제'를 앞두고 시민들이 열사들을 기리며 조형물 앞에 헌화한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5·18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부활제는 매년 5월27일, 계엄군의 마지막 진압 작전이 있었던 날을 기억하며 열린다.

김양배 기자

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결의로 부활했다.

하지만 그들의 피로 세워진, 광장에서 승리의 환호를 먹고 자란 민주주의는 오늘도 여전히 위태롭고 불안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억으로, 문학으로, 예술로, 작품으로, 기록으로 그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학생 '동호'를 중심으로 끝나지 않은 5월의 이야기를 그려낸 소설 '소년이 온다' 저자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맞물려 5·18 민주화운동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한강은 소설 에필로그를 통해 "그들을 희생자라고 생각한 것은 내 오해였다"고 말한다. 5월27일 그들의 죽음이 희생이 아닌, 항쟁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소년이 온다'가 주목받기 전에도 진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예술적 움직임은 지속돼 왔다. 집단적인 예술활동으로 윤상

원 열사와 전남도청 최후 항전을 기억하기 위해 기획된 단체 '새벽광장'은 올해도 5월26일 오후 6시부터 27일 오전 6시까지 '그날'을 기린다.

새벽광장을 이끄는 인물 중 하나인,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연출한 진모영(50) 감독은 이날 시민들과 함께 5월27일의 새벽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다큐멘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문화·예술을 통해 5·18을 접한 젊은 세대는 새로이 '광주'를 읽기도 한다.

'소년이 온다'를 읽기 전 5·18 민주화운동을 그저 '슬픈 역사'로 생각했던 이서연(18)씨는 "소설 속 동호, 정대, 은숙이 지금 제 옆을 걷는 친구들처럼 보였다. 그들이 매 걸음마다 죽음을 마주했다는 걸 떠올리니 그 무게를 감히 가늠하기도 어려웠다"며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를 지켰던 그 순간, 비로소 소설 속 모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것 같았다. 광주에서 시작된 저항의 맥박은 지금도 우리 안

에 살아 숨 쉬고 있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과거의 슬픈 사건에 머무르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태도를 되문게 만드는 실체이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으로 기억되고 있다.

"엄마야, 저기 밝은 데는 꽃도 많이 폼네. 왜 캄캄한 데로 가요. 저쪽으로 가, 꽃핀 쪽으로."

'소년이 온다' 중 나무 그늘이 햇빛을 가리는 것조차 싫어했던 어린 동호가 엄마 손을 있는 힘껏 밝은 쪽으로 끌고 가며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밝은 곳으로, 꽃이 핀 곳으로 끊임없이 나아간다.

그 발걸음은 억압과 어둠을 거부하고, 정의를 향해 나아갔던 5·18 광주의 정신을 닮아 있다. 어둠 속에서도 끝내 빛을 향해 나아가려 했던 그들의 외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길이 되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 막오른 대선... '1강·1중·1약' 본선 레이스 점화

선택 2025 대통령 선거 D-21

이재명 "오로지 대한민국만 있을뿐"  
김문수 "민생·경제 대통령 되겠다"  
이준석 "민주당과의 한판 승부처"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비롯한 7명의 후보들은 이날 전국을 돌며 공약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했다.

대선 초반 선거 구도는 '1강 1중 1약'으로 형성됐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

석이다. 범보수진영에선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막판 변수로 보고 있으나, 이 후보는 김 후보와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빛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이 후보는 첫 유세에서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닌,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현정질서·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라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탄복 위에 파란색 선거운동 점퍼를 입은 이 후보는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은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내란 이전의 대한민국이 아닌, 신문명시대 새로운 표준으로 거듭날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더는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이념, 사상, 진영에 얽매어 분열할 여유가 없다"며 "이제부터는 진보의 문제도 보수의 문제도 없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기 성남 판교, 화성 동탄, 대전 등 'K-이니셔티브' 벨트를 돌며 반도체·과학기술을 강조하는 유세를 벌였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새벽 서울 송파 가락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대전을 거쳐 대구까지 하루 만에 경부선을 관통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김 후보는 "경제와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삶이 얼마나 힘든지 느낀다"며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들과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일꾼 여러분, 맘 흘려 일하는 자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충청권으로 이동해 중원 공략에 나섰다.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 전몰자와 천안함 46용사들에게 참배하며 안보와 보훈을 앞세웠다.

대전시당에선 충청권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무리했다.

이준석 대선 후보는 첫날 민주당 강세 지역인 호남을 찾아 청년·미래 세대 정책에 집중하는 등 '젊은 보수'로 차별화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0시' 일정으로 전라남도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찾았다.

이 후보는 "이공계 출신이면서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내게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기극에 가까운 단일화 쇼가 아니라, 정면 돌파의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의힘과의 단일화에 거듭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은 개혁신당과 민주당의 한판 승부처가 될 것이고 이준석과 이재명의 일대일 대결장이 될 것"이라며 "미래와 과거의 대결, 새로움과 낡음의 대결, 청렴과 부패의 대결, 유능과 무능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관련기사 4·5면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